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오늘 오후집회는 선교회별 월례회로 모입니다.

중구용산지방회가 주관하는 웨슬리회심기념집회가 오늘부터 23일까지 저녁 7시 30분 만리현교회에서 열립니다. 강사 : 이덕주 목사 (감신대 교수)

5월 26일(토) 오후 2시 '비폭력대화'를 주제로 전교인 평화세미나가 열립니다. 강사 : 신호승 (한국 비폭력대화센터 강사)

기독교 환경주일기념 연합예배가 23일(수) 오전 11시 기독교회관에서 있습니다.

듣거나 읽은 말씀을 깊이 새기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 하루에 10분 이상씩 기도하는 시간을 마련해 보십시오.

2012 청파전교인여름수양회
 일시 : 8월 2일(목) - 4일(토)
 장소 : 홍천 팔열 중고등학교

식 당 봉 사 : 백혜숙 김희우 정현숙 박경원 김현주 조순덕 박규석
 5/27 식 당 봉 사 : 안정숙 진정숙 이해령 이용숙 최희영 유영남 김정민
 오늘설거지봉사 : 박수경 이국노 김민화 유상진
 다음 주 설거지 : 이준하 양상철 박재란 박찬덕
 새 교 우 : 박은애(청) 황현성(4남) 이오복(6여) 이지영(7여)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 아 부	10:50	유아부실	1부 예배	09:30	교육관
유 치 부	10:50	유치부실	2부 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 육 관	오후집회	13:30	교육관
중고등부	09:30	교 육 관	수요집회	19:30	교육관
청 년 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

- 우리교회의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생명의 바람, 평화의 물결 되어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주일 낮 예배 순서

자비하신 하나님, 모든 만물에 생명을 주시고 자유롭게 살게 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산과 들의 녹음은 깊어지고 새들의 지저귐은 높아만 갑니다. 생명의 숲을 만드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초대에 응답하며 살게 해 주십시오. 숲으로 난 길을 걸으며 우리의 호흡과 마음이 제자리를 찾게 해 주십시오.

주님, 무고하게 죽어간 이들의 피흘림을 너무 쉽게 잊어버리는 이 사회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자유와 민주와 인간다움을 위해 몸부림치다가 폭력의 손길에 희생된 많은 이들의 죽음을 잊지 않게 해 주십시오. 고마운 마음, 미안한 마음들이 모여 그런 슬픈 역사가 반복되는 것을 막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 헌금 영수기 ·

십일조 및 월정헌금:

고속이 김미순 김상근 최선미 김용진 박효선 김윤수 박상호 김재환
 김진선 김재흥 최희영 김준호 관해자 김현주 김혜권 박재임 문복순
 최현선 박병구 김정애 박인혁 박창운 허정운 백묘현 백성래 서수진
 송동준 김진경 윤미경 윤수진 윤주원 최윤선 이윤석 박안수 이재훈
 이주영 오재영 이종자 김창경 이한림 김명희 이현순 박임주 빈최현옥
 정연희 조병주 주경진 이윤정 최재욱 이수정 하정석 이명희 한기택
 한상의 정영선 홍복선 홍성식 이유리 LK 무명4

감사헌금:

강순배 김종락 박영신 노준우 박근혜 박병구 김정애 박솔잎 백송이
 박송현 안정현 박숙영 박창운 허정운 백혜숙 서원금 윤성종 김윤정
 조순덕 최중훈 김금하 무명11

녹색꿈헌금:

김용길 최영혜 김용진 박효선

장혜숙	백혜숙	교회	정두리
노순옥	박성희	노순옥	이준림
최희영	최경미	심숙	최경미
장영숙	신영신	장영숙	신영신
정경례	진정숙	야외	김혜권
박홍재	관권희	백묘현	문복순
박효선	허정운	김현주	방근숙
이순정	김금순	김금순	이봉옥
이형숙	권미숙	김재광	이형숙
안홍숙	오현정	안홍숙	이수정
정영선	서정순	서정순	송양진
박혜경	조향미	임창	백성래
김재흥	오자영		
이범석	이근식		
손성현	곽상준		

마음으로 읽는 글

조용한 날들

양애경

행복이란/ 사랑방에서

공부와는 담쌓은 지방 국립대생 오빠가/ 동당거리던 기타소리

우리보다 더 가난한 집 아들들이던 오빠 친구들이

엄마에게 받아 들여가던/ 고봉으로 보리밥 곁들인 푸짐한 라면 상차림

행복이란/ 지금은 치매로 시립요양원에 계신 이모가

연기 매운 부엌에 서서 콩치를 구우며/ 흥얼거리던 창가(唱歌)

평화란/ 몸이 약해 한 번도 전장에 소집된 적 없는

아버지가 배 깔고 엎드려/ 여름내 읽던/ 태평양전쟁 전12권

평화란/ 80의 어머니와 50의 딸이/ 손잡고 미는 농협마트의 카트

목욕하기 싫은 여덟 살 난 강아지 녀석이

등을 대고 구르는 여름날의 서늘한 마룻바닥

영원했으면... 하지만/ 지나가는 조용한 날들

조용한... 날들...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흥 이범석
원로전도사 : 박옥식	전도사 : 장영숙 손성현
소속목사 : 김준우 한인철 양재성 한정애	
원로장로 :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구성실	
장로 : 조병무 한완식 윤석철 방문성 한상의 김인걸	
지휘 : 윤주원 안홍숙	반주 : 최윤선 김수진 오지은
차량 및 교회관리 : 오진훈	도서관장 : 박혜경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남을 짓밟고 올라갈 수 있는 높은 자리는 없습니다. 몸을 낮추고 살아갈 때 높은 곳에 서게 됩니다. 낮은 곳으로 흘러가 못 생명을 섬기며 사십시오. 그 자리가 우리가 서야 할 곳입니다.

아멘. 높은 곳이 내가 설 곳이라고, 내 인생의 목표점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온 지난날의 모습을 반성합니다. 높은 자리 버리고 낮은 자리만을 찾아다니시던 주님을 기억하며 살겠습니다.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물처럼 낮은 곳을 향해 흘러가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동행이 되어 주십시오. 아멘.

주일 오후 집회	수요 집회
선교회	마가복음 / 이범석 목사 기도 : 윤정덕 장로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김재흥 목사 김기석 목사	공동기도 윤석철 장로	리 봄 선생 김윤정 집사

5월	영접위원	한상의 김종락 하정석 정현숙 박영신 한상경
	헌금위원	한완식 허정윤 (보조 : 다른 재무부원들)

길

-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마르1:7-11) -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너 크면 무엇이 될래, 라고 묻기를 잘한다. 직업이나 사회적 신분에 대해 아무것도 모를 어린 나이엔 곧잘 아빠가 될래요, 또는 엄마가 될래요, 라고 대답한다.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 다닐 만해지면 선생님이 되겠다는 아이들이 많다. 거의가 자기가 속한 울타리 안에서 가장 사랑하고 싶고 우러러 보이는 사람이 되고자 한다. 그러나 비판의식이 생기고부터는 엄마 아빠처럼은 되지 않겠다, 선생님 노릇은 절대로 하기 싫다는 소년소녀도 생겨나게 된다. 엄마 아빠처럼 되고 싶다, 선생님이 되고 싶다는 꿈이 오래가는 아이는 복 받은 아이들이다.

핏줄이라는 운명적 만남이나 학교라는 최초의 사회적 만남이 다 행복하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과학자가 되고 싶다, 음악가가 되고 싶다, 청치가가 되고 싶다는 포부가 생기는 것도 자기 안에 꼭 그게 아니면 안 되는 천부적인 걸 발견해서라기보다는 먼저 그렇게 된 사람한테 감명을 받거나 특별히 근사해 보이는 그런 전문가 중의 하나를 동경하는 것으로부터 비롯되는 수가 많다.

종교의 자유는 헌법에 보장돼 있고, 종교를 가진 사람도 있고 안 가진 사람도 있지만 종교적인 심성은 누구에게나 있다. 눈에 보이거나 만질 수 있는 세상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생각, 자신이나 남이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을 때 느끼는 하늘 무서운 공포감, 죽음에 대한 해결할 수도 극복할 수도 없는 두려움, 어두움이나 침묵, 고독에 대한 섬뜩한 전율 등도 결국은 종교적 심성이다.

그러나 나이를 먹을 만큼 먹은 사람이 특정한 어떤 종교를 선택하기까지는 여러 갈래의 길이 있는 것 같다. 그 종교의 경전을 열심히 읽고 크게 깨달았을 수도 있고, 돌연 어떤 계시를 받았다고 여겨지는 신비체험을 한 경우도 있겠으나, 그보다는 성직자나 먼저 신앙을 가진 사람의 언동을 보고 감동을 하거나 저렇게 살고 싶다는 존경심을 갖게 된 게 직접적 계기가 된 경우가 훨씬 더 많다. 나의 경우를 생각해도 성경을 알게 된 것은 문학소녀 시절부터였지만 예수님을 본받을 만한 분이란 생각이 들기 시작한 것은 그보다 훨씬 후였고, 마침내 주님으로 영접할 용기가 생긴 것은 당시의 암울한 시대상을 향해 거침없이 외친 정의구현 사제단의 참다운 용기에서 영향 받은 바가 컸다.

그런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도 생활태도가 본받을 만한 뿐 아니라, 사람됨이 너그럽고 인자하여 가까이하고 싶고 뭐든지 의논하고 싶은 사람이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을 때 그 종교에 대해서 호감을 갖게 되는 건 당연하다. 어떤 종교의 경전을 읽고 이거야말로 진리다, 라고 아무리 깨우친 바가 컸다고 해도 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의 언행이 걸 다르고 속 다르고 위선으로 가득 찬 걸 보면 자연히 그 종교에 대해 뜨악해지고 만다. 그래서 예수님은 좋아하지만 예수쟁이들 꼴보기 싫어 교회엔 가지 싫다고 공언하는 사람도 생겨나게 된다.

세례를 받는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책임감을 통감하게 된다. 세례를 받고 나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특권을 갖거나 별안간 진리를 깨우친 사람이 되는 건 아니다. 좋은 교인이란 자신이 진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겸손되어 진리에 이르는 길의 일부가 되는 게 아닐까. 탄탄대로가 아니라도 좋으니 예쁘고 아기자기한 오솔길이라도 되고 싶다.